

계림동 헌책방 거리 산뜻한 변신

전남대 문화사업단 특성화 사업 간판 새 단장·책마을 지도 제작

광주 시민들의 추억이 스며있는 동구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주변의 헌책방 거리가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낡고 허름한 간판을 단 헌 책방들이 화사하게 단장했으며 거리도 한결 산뜻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깔끔하게 정비된 간판들. 추억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나 책이 가득한 책꽂이 모양의 간판은 보기만 해도 정겹다. 간판에 쓰인 상호와 전화번호 등은 옛 분위기가 나는 서체에 검은 색으로 통일했다.

책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던 헌책방 앞도 가지런히 정돈됐고 자전거 도로로 단장된 인도는 깔끔하다.

이곳 거리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은 지난 3월. 전남대 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단장 천득영 교수·이하 문화사업단)이 계림동 헌책방 거리를 대상으로 '계림동 책 마을'을 거리간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간판 디자인에는 시민들과 헌책방 주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헌책방 거리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억을 수집했고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도 모두 만나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

책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던 헌책방 앞도 가지런히 정돈됐고 자전거 도로로 단장된 인도는 깔끔하다. 이곳 거리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은 지난 3월. 전남대 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단장 천득영 교수·이하 문화사업단)이 계림동 헌책방 거리를 대상으로 '계림동 책 마을'을 거리간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양서점'은 대나무와 함께 70년대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자전거에 여학생을 태우고 가는 모습으로 단장됐다. "서점이름이 '답양'이니 대나무를 간판에 넣어 달라"는 주인 아저씨의 의견도 반영했다.

인근 '대교서점'은 책꽂이가 그려졌고 '한일서점'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대학생이 남학생과 딸기머리 여학생을 배경으로 삼아 간판을 완성했다.

옛 간판을 고집한 헌책방은 간판은 그대로 두고 대신 벽을 꾸몄다. 간판 아래에는 파란색 자주색의 작은 천막을 달고 그 왼쪽에는 계림동 헌책방 거리를 상징하는 '계림동 책 마을'이라는 글자도 넣었다.

간판 디자인은 문화도시공작소 인유가 맡았으며 제작과 설치는 라파사사업단과 (주)명진광고, 여기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문화사업단이 지원했다.

또 최근에는 계림동 헌책방을 소개하는 '책 마을 문화지도'도 만들었다. 지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10곳의 서점 위치를 표기했고 서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할 책갈피에는 서점들의 연락처를 넣었다.

알록달록 예쁘게 디자인한 책마을 지도에는 이번 사업의 취지와 계림동 헌책방 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추억을 담았다.

한일서점을 운영하는 김덕렬(41)씨는 "깔끔하고 정겨운 느낌의 간판과 천막이 눈에 든다"며 "새로운 마



최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주변의 헌책방 거리가 산뜻하게 단장되면서 새로운 문화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음으로 더욱 친절하게 손님을 맞으며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말이면 헌책방 거리를 찾는다. 박성철(43)씨는 "간판도 그렇지만 헌책방 내부도 확 달라져 기분 좋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계림동 일대가 책을 찾는 사람이 북적대 활기 넘치는 거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때 40여 곳의 헌책방이 영업하며 활기를 띠었던 이곳 거린데 현재,

문화지도에 표시된 10곳을 포함해 총 12곳의 헌책방이 인근이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도 손님이 없는 평일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문화사업단 임선주(32)씨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헌책방 장터나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 사업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헌책방 주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작가들이 서울 호텔 간 까닭은?

21~23일 '툼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
유수중·고근호·신양호 씨 등 참가

지역작가들이 서울 호텔 나들이(?)에 나선다. 유수중, 고근호, 신양호, 박선주, 고영을, 주대희, 김화영, 정운화씨 등은 21~23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11'에서 열리는 '툼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에 참가한다.

툼 갤러리 호텔 아트페어는 한국과 일본의 화랑들이 주축을 이뤄 지난해 일본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아시아 미술시장의 교류를 목표로 출범했으며, 호텔 객실에 미술품을 전시·판매하는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오라비꽃을 화폭에 담고 있는 유수중씨는 이번 아트페어에서 원색의 찬란한 색채로 표현한 '달과 해오라비' 연작을 선보인다. 앞다퉈 피어난 해오라비꽃은 새들의 군무를 보는 듯한 활활함을 자아낸다.

또 고근호씨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 마이클 잭슨과 마릴린 먼로, 제 게바라 등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영웅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 밖에 신양호씨는 폐품으로 만든 '생선 시리즈'를 전시하고, 주대희씨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다양한 표정을 화폭에 담은 작품을 내었다.

한편 이번 아트페어에는 이우환 작가의 시대별 작업을 엿볼 수 있는 대표 작가 특별전과 한샘마의 특별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근호 작 '어린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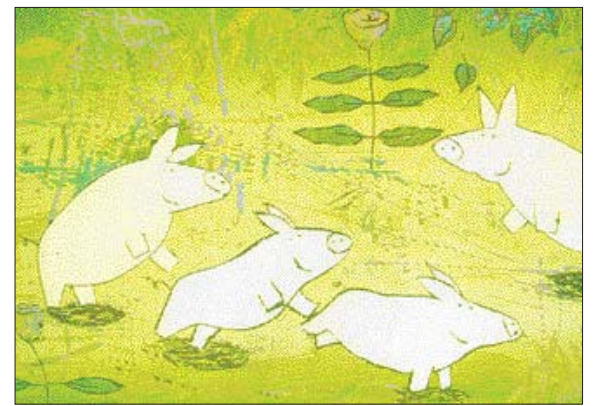
신자유주의엔 자유가 없다

임병중 판화전 ... 26일까지 무등갤러리

선사시대 암각화와 고대벽화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독특한 판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임병중씨가 오는 26일까지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임씨는 '신자유주의엔 자유가 없다'를 주제로 불필요한 부분을 파내는 불록 판화의 일종인 '소멸점층법'으로 제작한 신작을 선보인다. 흙, 탄산마그네슘, 천연 안료 등 다양한 재료를 첨가해 자연스러운 질감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고대 벽화에서 느낄 수 있는 낡고, 오래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선이 다소 거칠지만 선사시대의 야성과 종교 의식을 생생하게 풀어냈다.

임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 베이징, 서



'Freedom No Freedom'

울, 부산 등지를 오가며 전시회를 했고 이스타불국제판화비엔날레 등에 출품했다. 현재 광주현대판화가협회, 에보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창작 국악 실내악단 '도드리' 공연

오늘 진도 남도국악원
국악·가요·팝송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창작 국악 실내악단 '도드리'(단장 김재섭)가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 초청으로 21일 오후 7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날 무대에서는 국악 창작곡, 국악가요를 비롯해 팝송과 대중음악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첫곡으로는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는 동안 경치를 읊은 대목을 모티브 삼아 만든 창작곡 '남도뱃노래'를 판소리와 국악관현악으로 들려준다.

또 김준탁, 김산옥씨가 국악가요 '강물처럼 자유', '낭만배 띄워라'를 선사하며 비보이와 재즈댄스가 어우러진 실내악곡 '어울림'이 흥을 돋운다.

그밖에 영화 '왕의 남자' 삽입곡인 '인연'과 재즈곡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아름다운 강산' 등을 장소영씨가 선사한다. 웅장한 국악 관현악에 현대적 선율을 가미한



'컨템퍼러리 아리랑' '죽향풍류' 등도 들려준다.

1998년 창단된 '도드리'는 전통국악과 함께 창작 국악을 통해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국내는 물론 멕시코 등지에서도 공연을 가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예총 특별위 창립 총회

"자생력 키우고 문화 발전 비전 제시"

지역 예술인들의 결합체인 광주예총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문화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모임체가 꾸러졌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은 19일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예총 특별위원회 창립총회'(사진)를 열었다. 특별위원회는 예총자문위원회(위원장 권태홍·전 고교교장), 문화중심도시 예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화·전 광주시정무부시장), 기획·정책위원회(류호영·광주대 평생교육원 교수), 광주예총회관 건립추진위원회(박철규·전남대 명예



교수) 장학 및 후생복지추진위원회(오형근·성형외과의사) 등 5개 분야에 7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인된 각 위원장들은 광주예총 임원으로 광주예총회장 선거권도 행사하게 된다. 예총특위는 광주의 문화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문화 비전을 정립하는 등 광주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월기반 JAVA 개발전문가 교육생모집... 전액국비 지원... 8월 24일... 중앙IT직업전문학교

김재규경찰학원의 활기찬 신호는 계속됩니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원어민!!! 영어회화... 영어회화, 꼭 해야 합니다... 070-7433-0594

전원생활과 지테크... 전문가 교육... 생활건강과 케네코에 결합